


이 력 서

	성명	박 성 근 (Park Sung Keun)	
	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주소	Av. Ex Hacienda Norte Chapulco Norte 611 Col. EXHCD de CHAPULCO FRACTO, Pue. Puebla, CP72494 Mexico	
	주민등록번호: 520501-1023926 여권번호: M82329960		
세례	1979년 11월 25일 교회: 장석교회 집례: 조영택 목사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	학위
	1971.3. - 1975. 2.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1982.3. - 1987.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92. 3. - 1995. 2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
경 력	기 간	부 서	
	1980. 9-1991. 2	서울신탁은행	과장대리
	1995. 1- 1998. 12	온누리교회 전임교역자	전도사 목사
	1998. 12 -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멕시코 파송 선교사(주후원: 온누리교회)	
<p>연락처: 국외 본인: 070-4686-1952, 010-5395-1952 현지 휴 52-1-222-101-9502,</p> <p>이 메일: skpark153@hanmail.net, park_sungkeun@yahoo.com</p> <p>현재 사역 근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개척: 현재 약 6년 전부터 새 교회를 개척하여 현재 선교사 가정 외에 25 a 명 정도의 교회의 교인으로 출석하고 있음. 신학교사역 : 멕시코 뿌에블라주 수도인 뿌에블라시 외곽지역에 부지를 1,122 평방미터를 확보하여 약 450 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짓고, 4년 1개월 전에 신 학교를 오픈하여 현재 4개 학년 16 명이 공부를 하고 있음. 2019년 8월 멕시코 사역을 후임선교사에게 이양하고 일본 사역을 위하여 입국을 기다리고 있음 			

자기소개서

박성근 선교사

본인은 함경북도에서 피난을 온 부모 아래서 강원도 산골에서 자라났음.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전근을 자주 하여 초등학교 시절 횡성군, 삼척군의 여러 산골 학교를 다녔음. 중학교는 홍천군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는 서울에 올라와 다니게 되었음.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하며 별로 열등감을 가져 본 적이 없으나 서울로 오게 되면서 강원도 산골 출신으로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 속에 오직 공부에만 매진하여 목표로 삼았던 학교에 들어 가게 되었음.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실한 어머니의 기대를 깨뜨리기 싫어서 교회에 다녔으나,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대학교 입학하기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사영리로 전도하는 대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과 신앙으로 인한 기쁨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그들이 속한 대학생선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그곳에서 사영리와 성경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룹모임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음. 3학년 때는 서울지구 총순장이 되었으나, 사법고시를 핑계로 중도에 사임하고 사법고시에 전념을 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열심히 준비할 수가 없어서 실패하고 군에 입대하였다가 제대한 후 서울신탁 은행에 입사하였음. 직장에서 좋은 부서와 해외주재원(독일)으로 입사동기 중에서 선두그룹에 있었으나, 나이 40이 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본인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장신대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음. 신대원 시절 작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기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 왔으나 교회가 너무 작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학생들은 남들이 좋아하는 큰 교회 섬길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라는 설교 말씀을 주님께서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봉화현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일년을 섬기고 모교회에서 오라 하여 3학년 때에는 모교회인 개봉교회에 중등부를 섬기게 되었음.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본인이 대학생일 때 대학생선교회 간사이셨음)은 본인이 신학교에 들어 온 것을 알고 온누리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오라고 했지만 아직 그렇게 섬길만한 자격이 없으니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불러 달라 하였음. 본인의 요청대로 신대원 3학년 가을에 하용조 목사님이 불러 주셔서 온누리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되었음. 그런데 그곳에 가서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음. 한편 본인의 아내인 김인옥 선교사는 중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하여 본인에게 때때로 선교사로 가자고 하였으나 여자가 서원한 것은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여 완강하게 거절하였음.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이 3년이 끝나갈 무렵 아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아내는 영성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캐나다로 유학을 가기를 원해서 온누리교회를 떠나겠다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 공부는 그만하라. 당신의 은사는 적은 수의 인원을 데리고 오랫동안 제자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선교사의 은사이다. 마침 멕시코에서 성경학교에서 가르칠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하는 데 기도해 보시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음. 본인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음. 가족의 동의를 얻어 멕시코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고 1997년 말 교회에서 파송을 위한 안수까지 받았음. 그러나 멕시코에서 온누리교회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선교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요청을 철회하여 예정된 곳으로 갈 수 없게 되었음. 본인은 그러나 이미 선교사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어디든지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일단 선교훈련을 받기로 하여 GMTCC에서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선교훈련을 받고 이어서 가을에 본 교단 선교사 훈련을 2개월 동안 받게 되었음. 그 동안 10일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본인이 멕시코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느끼게 되었음. 12월에 교단파송선교사로 출국하여 코스타리카에서 1년 동안 스페인어를 배우고 1999년 12월에 멕시코에 도착하게 됨. 15년 동안 이곳 저곳 다니며 교회개척도 하고 목회자 성경공부 모임도 인도하면서 지내는 동안 선교센터를 세워서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사역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사역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약간의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음. 멕시코의 교회의 목회자의 80퍼센트는 신학교도 가보지 못한 현실을 볼 때,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성경학교나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음. 그런데 선교센터를 세우기에 적합한 땅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모금을 위해서 2011년 가을에 40일간 한국을 방문하였음. 본인이 아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사역보고를 하면서 선교센터를 세울 비전이 있으니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약간의 현금을 낼 뿐 땅을 살 정도의 금액에는 터무니 없이 모자랐음. 그런데 그런 모임 중에 하나에 장인 장모님이 참석하여 들으시고는 5천만 원을 현금하셨음. 전에는 1원 한 푼도 현금하신 적이 없었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간 것 자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던 분들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생각함. 이렇게 땅을 마련하고 주후원교회인 온누리교회에 건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니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을 후원하여 주게 되었음. 본인이 선교사로 나갈 때 프로젝트성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여 건물을 지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본부에서 허락해 준 것도 기적으로 생각함.

현재 이곳에서 4학년 과정으로 16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5 명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강의하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교회도 개척하여 현재 20-25 명 정도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음.

그러나 본 선교사는 각각 다른 그룹의 예언자들로부터 일본으로 사역지를 옮기라는 예언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보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곳 사역을 다른 선교사에게 넘겨 주고 내년부터 일본으로 사역지를 옮기기로 하였음. 처음에는 일본 교단 소속 교회에 평신도로 다니다가 그 교단 소속 목사 없는 교회에 목사로서 섬길 예정임. 일본 교단은 정년이 없어서 70세가 넘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목사로서 섬길 예정임.